

2007 **희·망·도·약**

영화인 김유성·장성호·박영수씨

# 광주출신 30대 3인방 총무로서 '대박'의 꿈

한국 영화의 '메카'인 총무로 '광주 출신 30대 3인방'이 됐다. 지난 연말 개봉한 섹시코미디영화 '누가 그녀와 잤을까?'의 김유성(32) 감독, CG(컴퓨터그래픽) 전문업체 '모팩 스튜디오'의 장성호(37) 대표·박영수(32) 실장이 그들이다. 이들은 금남중학교 선후배·문성고 동기이기도 하다.

“태원영화사에서 제작하는 신작 감독으로 유성이를 처음 만났어요. 알고 보니 광주 금남중 후배였어요.

영수와 유성이는 문성고 동기이고...”  
‘모팩 스튜디오’의 장성호 대표.

## 광주 금남중 선후배·문성고 동기 사이 감독·CG ‘누가 그녀와 잤을까?’ 합작

그는 한국 영화 CG의 밑그림을 그린 '1세대'다. 사재 3억원을 털어 작업한 '화산고'(2001년)는 한국영화

CG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작품이다. '화산고'로는 별 재미를 못 봤지만, 이후 'YMCA 야구단' '빙우'

“첫 작품이라 서투른 점도 많았는데 영수가 큰 힘이 됐어요. 여러 밤을 새워가며 한 컷 한 컷에 공을 들여줘서 고마울 따름이죠.”

전산화과를 졸업한 뒤 '모팩 스튜디오'에 합류한 박영수 CG감독은 “올드 미스 다리애리” '역도산' 등을 작업한 업계의 숨겨진 고수다. 김 감독은 “신작에도 이들 두 사람과 함께 작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모팩 스튜디오'가 업계 최고 수준인데다, 호흡도 잘 맞아서다.

준비 중인 작품은 일제 치하 사이클 선수 엄복동(1892~1951)의 과감한 인생 이야기. 엄복동은 1913년~1922년, '전조선자동차대회'에서 일본 선수를 물리치고 우승해 조선의 '희망'이 됐으나, 1930년대 이후 떠돌이 생활을 하며 조국 잃은 울분을 삼켜야 했던 풍운아다.

“광주 3인방”은 2007년 새해를 '대박의 꿈'으로 시작했다.

된 '영화'를 만나기까지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

“고3 때 연극영화과에 입학하겠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동시대 연극영화과 입학했는데,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졌어요.”

무작정 '총무'로 향했지만 지방대 출신이 설 곳은 마땅치 않았다. “SF영화 '내츄럴 시티'를 99년부터 4년간 했는데 청춘을 저당잡힌 기분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견뎌냈죠. 결국 5명 조감독 중 막내였다가 두 번째 조감독으로 오르게 됐어요.” ‘몽정기’의 조감독을 거친 그는 ‘누가 그녀와 잤을까?’로 3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감독’이 됐다. 태원 영화사, CJ엔터테인먼트 등 굴지의 투자자들이 그에게 50억원을 투자했다.

“첫 작품이라 서투른 점도 많았는데 영수가 큰 힘이 됐어요. 여러 밤을 새워가며 한 컷 한 컷에 공을 들여줘서 고마울 따름이죠.”

전산화과를 졸업한 뒤 '모팩 스튜디오'에 합류한 박영수 CG감독은 “올드 미스 다리애리” '역도산' 등을 작업한 업계의 숨겨진 고수다. 김 감독은 “신작에도 이들 두 사람과 함께 작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모팩 스튜디오'가 업계 최고 수준인데다, 호흡도 잘 맞아서다.

준비 중인 작품은 일제 치하 사이클 선수 엄복동(1892~1951)의 과감한 인생 이야기. 엄복동은 1913년~1922년, '전조선자동차대회'에서 일본 선수를 물리치고 우승해 조선의 '희망'이 됐으나, 1930년대 이후 떠돌이 생활을 하며 조국 잃은 울분을 삼켜야 했던 풍운아다.

“광주 3인방”은 2007년 새해를 '대박의 꿈'으로 시작했다.

김유성 감독도 인생의 '전환'이



이륙 직전 초경량 비행기 '스트릭 웨도우'에서 포즈를 취한 허영호씨. /연합뉴스

## 허영호씨 초경량항공기 완도 해상에 불시착

허씨는 무사 구조



정해년(丁亥年) 새해를 맞아 국내 최초로 초경량 비행기를 타고 여주~제주 간 왕복 1천100km 단독 비행에 나선 허영호(52)씨의 도전이 무산됐다.

허씨는 1일 오전 8시에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이글 비행장을 이륙, 담양에서 중간급유를 받았으며 낮 12시 10분~20분 사이 완도군 청산도 180도 남방 4.3마일(6.91km, 제주 북동쪽 38마일) 상공을 지나던 중 해상에 불시착했다.

허씨가 조정한 '스트릭 웨도우'는

▲무게 225kg ▲날개 길이 9m로, 여주~화성~공주~전주~담양~목포~완도~제주의 150~500m 낮은 고도를 시속 150~160km 속도로 왕복 비행할 계획이었다.

불시착 후 기체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던 그는 LPG 운반선인 진양선박 소속 '가스모니'(3천톤급)호에 의해 구조됐다. 갑작스런 엔진고장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비행기는 이후 수심 50m 해상에 침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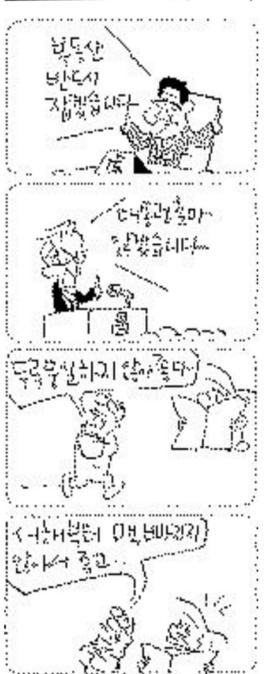
허씨는 “엔진이 덜덜 떨리고 방황하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시착을 결심했다”며 “드라이슈트와 구명조끼 등을 입고 있었고 다이빙 경력도 많아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씨는 완도 해경 P-87정(정장 한재훈 경위)에 옮겨타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이날 오후 3시 완도항에 도착했다. 이후 완도군청을 방문해 고마움을 표시한 뒤 목포로 이동, KTX편으로 상경했다.

그는 지난 1995년 남극·북극·에베레스트 등 세계 7대륙 최고봉 정복을 모두 이룩했으며, 1998년 초경량 항공기 조종면허증을 따서 어렵게 꿈인 비행사의 길로 들어섰다.

완도=정은기자 ejchung@

## 나원침 (7017) 김장동



평중선도저의 중점투자를 누리는 3.636 최대한계!  
동행한 최수경만 2명만 최고 10%!  
수원선도시 피오레  
문의: 062-367-9000

## 목포 연동성당 화재

1일 오전 8시27분께 목포시 산동동 연동성당에서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3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다. /목포=이승희기자 lsh@

## 빈집털이범 20층 아파트서 추락사

○아파트 20층에서 빈집을 털던 절도범이 투가하던 집주인을 피해 발코니를 통해 도망치려다 50m 아래로 추락해 사망.

○1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구립 31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H아파트 102동 1~2라인 출입문 지붕에 흉모(36)씨가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 신고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숨진 흉씨의 이웃 주머니에 이 아파트 20층 박모(여·49)씨 집에서 잃어버린 반지와 목걸이 등 19점이 발견됐다”며 “단지 내에 떨어진 일부 귀금속을 주위간 사람들은 물려달라”고 당부.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프로·대학야구 선수 3명 광주서 성폭행 혐의 체포

### 연말 고향 왔다 범행

대학야구 선수와 프로야구 선수들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은 1일 성폭력 피해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

대학 야구선수 김모(1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A·B 프로야구단 2군 선수 박모(1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구립 31일 새벽 3시에 광주시 동구 모 나이트

클럽에서 박모(여·21)씨와 부킹을 한 뒤, 박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광주 모 고등학교 야구 선수 출신인 이들은 연말을 맞아 광주에 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서로 원해 성관계를 한 것이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박씨는 “김씨 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나를 모텔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춘기자 jhlim@kwangju.co.kr

## 공익근무요원 등 3명 검거 취객 상대 '날치기·퓍치기'

### 운전 중 뺑소니도

광주 남부경찰은 1일 부녀자와 취객만을 골라 금품을 터는 속칭 '날치기'와 '퓍치기'(폭행 후 금품 강탈)를 해온 전남 모 군청 공익근무요원 김모(21)씨와 송모(19)·박모(15)군 등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휴전 승용차를 이용해 구립 19일 새벽 4시15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5가 앞 길에서 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이 들어있는 나모(여·50)씨의 손가방을

날치기 달아나는 등 11회에 걸쳐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날치기 한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달 17일 새벽 1시에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술에 취한 윤모(46)씨를 폭행한 뒤 현금 18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취객을 상대로 한 '퓍치기'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을 강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혹비 마련을 위해 승용차를 훔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운전 중 뺑소니 사고도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100년의 사람 - 부채표  
**동화약품**  
김동원